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6. 23.(일) 11:00 < 6.24.(월) 조간 > 배포 2024. 6. 22.(토)

한미·한미일 협력 논의 위해 방미

- 한미일 정상간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23.8월)에 따라 3국 산업장관회의 최초 개최
- 작년에 이어 제2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개최 및 양국 민관협력의 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6.24.(월)부터 6.28.(금)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이번 방미(訪美)는 한미일 3국이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6.26.(수)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미일 3국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계기 3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신설,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국은 이번에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경제안보 및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3국간 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3국 경제단체 주도로 한미일 재계회의를 발족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또한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상무장관 및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 양국간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제2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개최(6.27)하여 양국간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실질적 성과도출 방안을 모색하고, 한미 SCCD 반도체포럼(6.27)·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6.27)·청정에너지 비즈니스 포럼(6.25) 등을 개최하여 양국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장도 마련한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는 한미 양국간 협력의 심화·발전, 한미일로의 협력 확장을 위한 민·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며, "한미 양국, 한미일 3국간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서기관	김윤희 (044-203-5651)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서기관	유재영 (044-203-5125)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정은지 (044-203-4273)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박용민 (044-203-4530)
		담당자	사무관	지미란 (044-203-45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